

“음식장사, 공기밥 하나 더 주기도 벅차요”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식자재값·대출금리 인상 ‘삼중고’ 문 닫는 음식점 늘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3.9% ↓

“공기밥 하나 서비스로 주는 게 이렇게 부담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한달 벌어들여 대출금 이자 갚는 것도 벅잡니다. 더 이상 가게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숯불구이집을 운영하던 박모(48)씨는 이달 가게 문을 닫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소가격 등 원자재값 상승에 올해초 인건비마저 오르면서 “도저히 답이 안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씨는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고 그럭저럭 장사를 했었는데 올해초부터 불어닥친 원재료 값과 인건비 상승에 2-3달 적자를 면치 못했다”며 “대출금리까지 올라 이자를 막는 것조차 벅잡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시련을 보내고 있다. 장기화된 불경기로 가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식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인상, 대출금리인상이 동시에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지책(苦肉之策)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음식값도 올려보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4%를 기록한 이래 최고로, 농수축산물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식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광주지역 농수축산물 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2.6%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4.8%가 올랐다. 감자 가격은 전년에 비해 66.9%나 치솟았고 호박 역시 62.9%가 올랐다. 오이와 시금치도 각각 41.6%, 36.1%가 상승했다. 오징어와 고등어가 각각 37.4%, 18.2%, 고춧가루는 48.3% 상승했다.

온갖 식재료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오른 상황에서 급등한 쌀값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지난 2016년 80kg 기준 12만9807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지난해 15만3213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물가지수에서 쌀은 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민들을 생각하면 십수년 간 정체돼 있던 쌀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각종 채소가격 급등과 맞물리면서 “쌀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공기밥 서비스’도 옛말이 됐다.

지난해 이상기후와 겨울철 한파로 원자재 가격이 최고수준으로 오른 데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고충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리인상’은 큰 ‘악재’가 됐다.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리거나, 가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22조8041억원에서 올해 3월 1분기 23조1110억원을 기록했다.

3개월 만에 3069억원(1.35%)이 불어난 셈이다.

이런 여파 탓에 실제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의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래 가장 적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 2013년 3월(15만8000명)이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줄면서 자영업자도 14만8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5만5000명)에 견줘 3.9%(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수치도 지난 2012년 8월(14만8000명)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음식업 등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대출금리인상 등 ‘삼중고’ 압박을 견디지 못해 폐업이 이어지며 고용 상황 전체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8.96 (+18.16)	↑ 금리(국고채 3년) 2.21 (+0.01)
↑ 코스닥 879.69 (+11.34)	↓ 환율(USD) 1074.20 (-3.80)

금호타이어 신제품 유럽 공략

내달 1일까지 獨 쾰른 타이어 전시회 참가

금호타이어가 국제 타이어전시회 등을 통해 신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독일 쾰른 쾰른메세(Koelnmesse)에서 열리는 국제 타이어 전시회 ‘더 쾰른 2018’ (The Tire Cologne 2018)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독일 에센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타이어 전문박람회 ‘라이펜 에센’ (Reifen Essen)의 협력 단체였던 독일 타이어 판매업자협회(타이어)가 처음으로 별도 개최하는 행사다.

전시 공간만 국내 코엑스 전체 면적의 2배가량인 약 6만8000㎡에 달하며 세계

각지의 타이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지역 100여 개 주요 거래선을 초청, 고객과 소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고성능 제품, 사계절용, 겨울용,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23개 제품을 7개 존(Zone)으로 나누어 선보일 예정이다.

신제품으로는 윈터크래프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WS71, 윈터크래프트 SUV ice WS51, 에코윙 ES31 등을 전시하며 내년 출시되는 제품인 ‘엑스타 HS52’, ‘엑스타 PS71 SUV’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해양조, 레몬청 사랑 나눔 대학생봉사단 판매수익금 아동시설 기탁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젊은일세 봉사단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행사를 펼쳤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아동 보호시설인 해성공동생활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젊은일세 대학생 봉사단 23기 20여명은 지난 26일 광주패밀리랜드 대관람차 앞에서 레몬청을 판매해 1개당 5000원씩 65개를 팔아 총 32만 5000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보해양조 젊은일세 봉사단은 ‘기획봉사’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봉사를 직접 기획해서 실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를 했고, 지난 3월에는 아파트와 학교 경비원들에게 감사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기획봉사를 실시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세관 광산업 수출입 신고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광주전라지역 광(光)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성실신고 및 광(光)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추정 사례 및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사후 세금 추징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와 보정·수정·부가세 납부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제도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납세자가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낮게 신고할 경우, 5년치 수입건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함에 따라 기업은 일

시적인 자금부담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세액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는 강제적 관세조사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중심으로 과세행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오류 정보를 조기 제공하고,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와 같은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광주지역 대표 산업인 LED제품, 태양광 등 광(光)제품의 해외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 소개 및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숙박·미용·노래방 운영도 벤처기업 된다

중기부 18개 업종 규제 완화 ... 유희·사행성 업종 5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

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희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봉선동화시장 ‘문화관광 전국 최우수’

중기부 시장 평가...동화컨텐츠 접목 3대 서비스 호평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8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화시장’ (전 봉선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봉선동화시장은 지난해부터 3년간 총 18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동화 콘텐츠를 접목, 안전한 시장과 친절·정결한 시장, 결제가 편한 시장 등 3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했다.

또 상인들 스스로 시장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인기획단을 운영해 63개 점포가 신용카드 가맹률 98%, 온누리상품권 100% 취급이라는 성과도 이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길 봉선동화시장 상인회장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